

# 反극우 바람이 극우 돌풍 놀렸다 佛총선, 좌파연합 1위

극우당 3위로...좌파연합 182석·범여권 168석·극우 143석  
진보연합-범여권 단일화에 이변...‘극우저지’ 유권자막판 결집

지난 7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RN)과 그 연대 세력은 3위로 밀려났고, 참패가 예상됐던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위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1차 투표에서 불어닥친 극우 돌풍에 위기를 느낀 진보 연합과 범여권이 성사시킨 반(反) 극우 연대가 효력을 발휘, 대역전극이 연출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던 극우세력의 1당 진입은 현

실화하지 않았다. 높은 투표율에 반영됐듯 ‘극우저지’ 가치를 내건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치세력도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향후 정부 구성 및 의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좌파 연합이 중차대한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돌풍을 격퇴하며 승리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형의회와 함께 교착 상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 결과 좌파 연합은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해 1당에

올랐다. 1차 투표에서 참담한 성적을 냈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168석을 얻어 2위였고,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를 토대로 극우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으나 2차 투표에서 관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앞서 1차 투표 결과 RN과 그 연대 세력은 33.2%를 득표, 1위에 올랐고, NFP는 28%, 범여권 양상블은 20% 득표에 그쳤다. 1차 투표때만 해도 RN과 그 연대 세

력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 범여권은 60-90석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차 투표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온 데엔 1차 투표 이후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RN 후보의 당선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결과다. 극우의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데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날 결선 투표 결과로 의회 권력 장악을 눈앞에 뒀던 RN은 다시 한번 프랑스 정치권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총선 결과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좌파 연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감사하며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다. 좌파 연합 내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쑤 대표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좌파 연합의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환영했다. 멜랑쑤 대표는 “우리 국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거부했다. 국민의 과반수가 극우 세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며 “오늘의 결과는 수백만 명

의 국민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날 극우 정당이 1당에 오를 경우 반 극우 시위를 예고하며 파리 중심가에 모였던 시민들은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유권자는 RN의 집권을 막아냈다는 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총선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막판에 3위로 추락한 RN의 극단 르펜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연스러운 동맹이 아니었다면 RN이 절대 과반이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승리는 늦춰졌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환호하는 시민들

▶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총선 2차 투표 결과를 기뻐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에서는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했다.



## 美데스밸리 '사람잡는 더위' 오토바이 타던 관광객 사망

▶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1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기온이 54.3도까지 오른 데스밸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병원에서 온열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들이 오토바이로 배드윈터 지역을 여행하다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했다면

서 현재와 같은 고온은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지역으로 라스베이거스 기상청은 이번 주중에 데스밸리 방문자 안내센터가 있는 퍼니스 크릭의 최고기온이 50도가 넘을 수 있다고 예보했다. 데스밸리의 역대 최고기온은 지난 1913년 7월에 기록한 56.7도지만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7월의 54.4도가 최고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 “문득 선친 생각...” 바이든에 동정 여론

“노화 지켜봤을 바이든 가족들 연임 등 떠밀어” 분노도

첫 대선 TV 토론 이후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동정 여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노출한 81세 노인의 흔들리는 모습이 미국인들의 안타까움을 자극했다고 보도했다. 후보 교체론과는 별개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가족이나 지인의 모습을 발견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노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은퇴 공무원 드보라 프라이스(76)는 “바이든 대

통령의 모습에서 70대에 들어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선친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으면서 “선친도 벼랑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오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원인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가 교체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를 선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경우에도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 교사인 진 몰터(63)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노화한 상황을 가족들은 지켜봤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도록 가족들이 등을 떠미는 이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필리핀서 실종 연인 2주 만에 숨진채 발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필리핀에서 이스라엘인과 필리핀 국적의 남녀 2명이 실종신고 약 2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

르면 필리핀 경찰 당국은 전날 오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라라크주의 한 채석장에 파묻힌 37세 이스라엘인 남성과 27세 필리핀인 여성의 시신을 찾았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1일 스

포츄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숙소를 떠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이들의 SUV가 불에 탄 채 타라라크주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타라라크주 타라라크시의 20만5천㎡ 넓이 농지를 사들이는 거래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실종과 관련해 이 부

동산 중개인, 앙헬레스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 등 7명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업무상 출장으로 필리핀에 온 중국인 1명과 중국계 미국인 1명이 납치, 살해됐다. 범인들은 이들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해 몸값 300만 위안(약 5억7천만 원)을 받고도 돌아 살해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